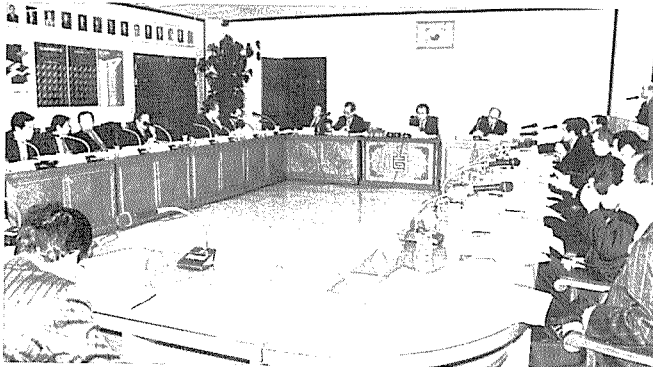


이사회 개최



제8회 이사회 광경

본 협회는 주요 당면 과제 협의를 위한 이사회를 지난 2월22일(5회), 3월8일(6회), 3월15일(7회), 3월18일(8회)에 각각 개최,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의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5 회

· 행정쇄신위원회의 국민제안에 대한 협의

— 행정쇄신위원회의 국민제안 건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정쇄신 과제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함.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

— 본 협회 의견을 법제위원회에서 정리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제 6 회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에 따른 회비수납 기준 승인의 건

— 사무처에서 작업을 하고 이춘상, 이일윤 이사가 결정, 차기 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 건축사보수교육 일정 계획(안) 승인의 건

— 교육시간 배정은 김택성 연수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 본협회 상근부회장인 박경환 부회장을 연임하기로 함.

·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안) 승인의 건

— 일부 문안 수정, 승인함.

· 건설자재시험소 설치 계획(안)에 대한 협의

— 시험준비위원회(김규태, 이종만, 김택성)에 위임함.

·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안)에 대한 협의

— 감리 위원장과 설계위원장이 최종 협의 후 시행하기로 함.

· 건축용역업 진출규제 완화 반대서명 결의에 대한 협의

— 집행부에서 결의문 및 서명양식을 작성, 각 건축사회에 송부하기로 함.

○제 7 회

·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이사 3인(이춘상, 김인곤, 김규태)에게 검토,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이사 3인(이춘상, 김인곤, 김규태)에게 검토,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부결하되, 총회에서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사용 방법은 결의할 수 있도록 함.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건축사신문 발간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사업내용은 승인하되, 예산에 대하여 이춘상, 김인곤, 김규태 이사회에게 검토,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제 8 회

· 건축사 수급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승인의 건

— 연구용역계획은 승인하되, 연구용역 제목은 김인곤이사회에게 위임함.

·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예비비 1억4천만원 중 4천만원을 조사연구비에 추가하기

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함.

· 94회계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주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건축사신문 발간사업 및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개정(안) 승인의 건

— 시·도건축사회 의견 제출내용을 보완, 삽입하여 승인함.

· 건축통신 발간 계획(안)에 대한 협의

— 건설부에서 자료를 받아본 후 결정하기로 협의함.

서울건축사회, 건축사법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비상대책회의의 광경

「국민 제안」으로 행정쇄신위에 건의된 「대형건설업체의 건축설계권요구」에 대해 각 시·도 건축사회는 단단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 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3월14일 본 협 강당에서 건축사법 개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단호한 대처방안 강구와 단결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오웅석 본협 회장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부실공사 방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기된 이 제안을 건설부도 일정한 한계를 지어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 간의 경위와 현재상황을 설명하고, 4천여 건축사를 대형건설업체의 직원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이 법개정에 적극 개입,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대형건설업체 설계진출 결사 반대한다」,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책임을 감리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린 이날 회의장은 건설부와 대형건설사를 성토하는 발언이 계속 이어졌으며, 실천방안으로는 현재 서명날인 받고 있는 것파 결의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해 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것을 결의했다.

'94 건축사 연수

본 협회는 지난 3월21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전국 4천3백여 회원을 대상으로 94년도 건축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건축행정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주차장법 해설,

건축사의 직업윤리 등을 주내용으로 실시되며, 전국 5개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나뉘어 순회, 실시된다. 교육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 간 계 획	교 육 내 용	강 사	비 고
08:30~09:20(50분)	등록 및 접수		사무국
09:20~09:30(10분)	인사말		교육진행 건축사 회 회장
09:30~10:50(80분)	건축행정관련제도 해설	이용락 사무관 (건축계획과)	
11:00~12:30(90분)	주차장법 해설	장기상 서기관 (도시정비과)	
12:30~13:30(60분)	중식		
13:30~14:50(80분)	건축사의 직업윤리	안병의 회원 ((주)김중업 종합건축사사무소)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 및 현안문제	박경환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실방지(새롭게 시작하는 건설)	VTR 상영	감사원 제작
15:00~17:00 (120분)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정무용 교수 (단국대학교) 강기세 회원 (종합건축사 사무소(주)범건축) 김태웅 회장 (경북 건축사회)	서울지역 지방지역
17:00~17:30	교육 정리		사무국



서울지역 연수 광경

일자	교육장소	건축사회	인원	비고
3.21(월)		강남1	440	강남1(440)
3.22(화)		강서2, 강동,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440	강동(44), 강서(42), 관악(58), 구로(45), 노원(12), 도봉(43), 강남2(196)
3.23(수)	본 협회 강당	서초, 서대문, 은평	441	서초(346), 서대문(42), 은평(53)
3.24(목)		동작, 성동, 성북, 영등포, 용산, 종로, 중구, 중랑	436	동작(39), 성동(77), 성북(31), 영등포(85), 용산(44), 종로(77), 중구(45), 중랑(38)
3.30(수)		동대문, 마포, 송파, 양천, 인천, 제주	458	동대문(38), 마포(59), 송파(142), 양천(26), 인천(149), 제주(44)
4. 1(금)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부산, 경남	691	부산(448), 경남(243)
4. 6(수)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대구, 경북	419	대구(308), 경북(111)
4. 8(금)	광주신양파크	광주, 전북, 전남	273	광주(129), 전북(90), 전남(54)
4.11(월)	대전시민회관 소강당	대전, 충북, 충남	281	대전(130), 충북(87), 충남(64)
4.13(수)	본 협회 강당	경기, 강원	441	경기(373), 강원(68)

15개 건축사회 계 4,320명

94년도 각 시·도건축사회 제1회 임시총회 성료



대구건축사회 임시총회 광경

올해 첫 임시총회가 지난 2월 한달중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를 비롯한 15개 각 시·도건축사회 별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참가속에 9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수지에산(안)결산과 94회계년도 추가경정수지에산(안)에 대한 승인을 주요 안

건으로 다루었으며, 93년 주요 사업 업무 및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특히 각 시·도건축사회에 따라서는 대의원 선출, 공사·감리비 예탁시행지침(안), 회장단 선거관리 규정(안), 분회설치 등에 대한 안전도 주요 의결사항으로 다루어졌다.

건축학회, 「제8차 전국대학 건축과 세미나」 개최

대한 건축학회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부터 건축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제8차 전국대학건축과 교수 세미나를 본 협회 강당에서 개최했다.

지난 81년 7차 세미나 이후 18년만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교육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그간 논의만 계속 되어왔던 건축교육의 개선방안과 그 실천적 추진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정부 건의와

대학차원에서의 추진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소주제의 발표에 이어 학계 및 실무계의 약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김정신(단국대)/국내 대학의 건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신동우(아주대)/건축교육제도 개선방향
- 전영일(동국대)/건축교육제도 개선안
- 김형우(홍익대)/선진외국의 건축교육제도와 새로운 움직임

### 콘크리트협회, 기술강좌 개최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기술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최광규건설부토목사무관은 「건설기술의 당면과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건설기술연구개발5개년 계획으로 97년까지 16개 대형연구사

업과 15개 중요연구사업을 선정,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와관련 산·학·연·관의 연구체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운용기준을 곧 마련, 기술개발 보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고건축 기초강좌」개설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는 3월19일부터 5월14일까지 10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삼성출판사 세미나실에서 고건축에 대한 기초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국제화시대를 맞

이하여 우리의 고유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어, 5월21일부터는 한국건축강좌가 기획·실시될 예정이다.

• 문의 :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 협회(547-9757)

일시	강의 제목	강사
3월 19일	우리의 옛건축(1)	신영훈(문화재 전문위원)
3월 26일	쉽게 익히는 고건축 용어	유문용( " )
3월 27일	(창덕궁)현장강의	유문용( " )
4월 2일	사원건축	황의수(문화재보존협회이사)
4월 9일	돌로 다듬은 건축물	황의수( " )
4월 16일	우리 땅, 우리 산줄기	이우형(광우당 대표)
4월 23일	한국의 살림집	김왕직(명지대 강사)
4월 30일	한국의 원야	이재근(조경학 박사)
5월 7일	아름다운 단청	박준주(한국단청협회회장)
5월 14일	우리의 옛건축(2)	신영훈(문화재전문위원)

### 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대상 : 도심형 초고층 공동주택(20층이상), 저층형 공동주택, 고층형 공동주택(15층기준)(각 형태 혼합 가능)

• 평면 :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 도입

• 외관 : 건축적으로 참신한 디자인 제시

• 응모마감 : 94년 5월 15일

• 문의 : 현대산업개발(519-9371)

### 제12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 이를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주, 시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서울시 건축상」의 올해 수상작이 지난 2월 28일 발표됐다.

올 해로 열두번째를 맞는 이상의 금상은 총 16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최영집(탐건축)회원의 「탑 스튜디오」가 선정, 영예를 차지했다.

예술성이 돋보인 금상작품외에 6작품이 수상했으며, 수상작품은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해 금년 11월경 대규모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장작품은 다음과 같다.

• 금상 : 탑스튜디오(최영집, 탐건축)

• 은상 : 삼부빌딩(정종영, 공간건축)

• 동상 : 큰길타워(최관영, 일건건축), 서울올림픽극장(김석철, 아키반건축)

• 장려상 : 서울대박물관(엄웅, 서울건축), 이화여대 목동병원(김창일, 정림건축), 방배동 삼호교회(우시용, 시공건축) 이상 7개 작품.

### 가협회 새 회장에 윤승중 회원 선출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18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있던 윤승중(원도시 건축)회원을 관례에 따라

회장으로 추대, 선출했다.

한편, 공식중인 부회장에는 김한근(한건축)회원을 선출했다.

### 「한국의 건축문화」, 비디오 제작

KBS 영상사업단에서는 「우리 땅에 우리의 건축을 심어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한국건축의 공간미를 통해 3차원적 입체 개념에서 포괄적인 공간 개념으로 인식시킨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작, 공급하고 있다.

이 비디오에는 전통건축의 외부공간/기와/민속건축(담장)/옛집(너와집)/한국의 문/전통목가구/단청(사원건축)/한국의 정자/한국의 성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의 : KBS 영상사업단 방송문화미디어(235-3195)